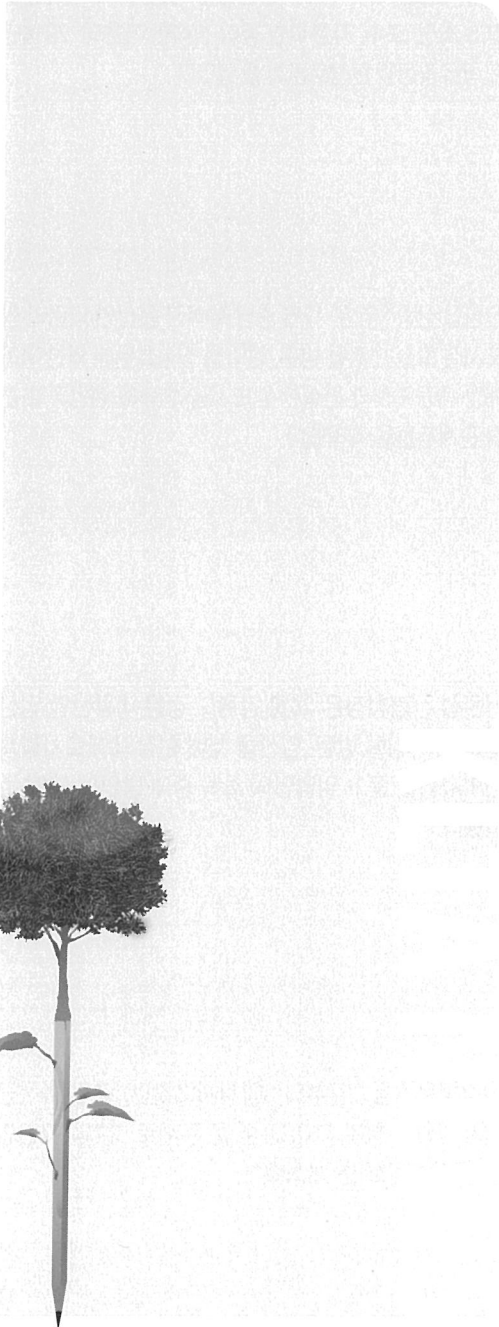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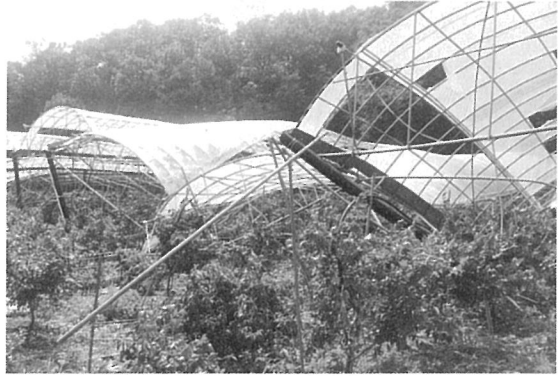




KLTA NEWS + 2014 Fall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기준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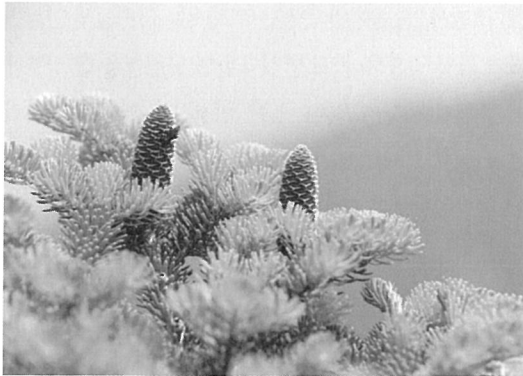


복구비용 산정 기준액 현실화로 임업소득의 안정망 구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엔 인상된 산림작물은 ▲다래(2,550천 원→6,180천 원/ha, 142%) ▲산양삼(8,080천 원→11,190천 원/ha, 39%) ▲머루(5,420천 원→7,400천 원/ha, 37%) ▲약초류(2,660천 원→3,400천 원/ha, 28%) ▲약용류(7,160천 원→8,760천 원/ha, 22%) 5개 품목으로 평균 54%가 높아졌다. 또한, 산림시설은 2012년에 처음 반영됐던 대추 비가림시설 5종이 평균 42%(각각 34%~48%) 인상됐다.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대추 재배 임가에게 일반형 66,050천 원/ha, 수동개량형 68,270천 원/ha, 자동연동형 88,990천 원/ha, 수동우산형 97,380천 원/ha, 자동우산형 101,620천 원/ha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 동안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현실 단가에 못 미치고 농작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준액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일부 품목과 산

림시설의 산정 기준액이 인상돼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와 시장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도록 했다.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모든 지원품목의 복구비용 기준액을 현실화해 나가겠다"며, 임업소득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임업분야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 자생지 발견



'기후변화취약종 분포예측모형'조사방법 개발로 희귀식물 보호 기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우리나라 대표 기후변화 취약종인 구상나무의 새로운 자생지를 영남알프스 영축산 일대에서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견은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예측모형'이라는 조사방법을 이용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의 활용성이 주목된다. 이번에 발견된 구상나무 자생지는 과거에 발견된 가지산 구상나무 자생지에서 남쪽으로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암반이 드러난 고산지

역으로 잣나무와 신갈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 점은 기존 구상나무 자생지와 유사하다.

※ 현재의 구상나무 자생지 : 가야산, 가지산, 금원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하지만 개서어나무, 노각나무, 애기감동사초와 같은 우리나라 남부와 저지대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 발견된 자생지가 쇠퇴하는 반면에 이곳 구상나무는 소규모 군락이지만 생육이 활발해 구상나무 종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은 이곳 자생지를 인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포함해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생지 발견에 이용된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예측모형' 조사 방법은 국립수목원의 오랜 식물보전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자생지 생육환경, 기후, 지형 정보 등 29가지 인자를 조합해 개발한 조사방법이다. 앞으로 구상나무 이외도 멸종희귀 수종의 분포 가능지역을 미리 예측해 기후변화 취약종의 종 보전에 중요한 연구기술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이번에 발견한 자생지는 소규모 군락이지만 생육이 활발해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 가치가 큰 곳이다"며, "이번 발견의 또 다른 의미는 '기후변화 취약종 분포예측모형' 활용성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희귀식물 자생지 발견과 복원 후보지 결정에도 중요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불법 산림훼손 더 이상은 아니 되오!

무주공산 인식변화 위해 '림자 사랑해' 캠페인 펼쳐



로잡기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작은 누리집(인터넷 마이크로 사이트)을 개설했다. * '임자 사랑해' 캠페인 사이트 : <http://blog.daum.net/kfs4079>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해 몰래카메라 형태의 실험적 공익광고 등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임(林)자 선언'에 참여한 국민들의 이름을 모아 연말에 신문광고도 낼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매달 불법산림 훼손행위의 단속 실적 공개를 병행해서 정책성과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을 찾는 국민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산림청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상의 정상화'의 산림 분야 대표 과제로 '불법 산림훼손 근절'을 지난 4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무주공산(無主空山, 주인이 없는 산). 산에서 마음대로 벌채나 훼손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뤄지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최근 3년 간 '불법산림 훼손' 발생 건수는 연평균 2,327건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규모로 따지면 연간 577ha이다. 매년 축구장 약 810개 면적의 숲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농경지, 공장부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불법 훼손이 1,817건(2013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벌채, 도벌, 임산물과 희귀수목 불법 채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 훼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

